

<에이아이> 스티븐 스필버그 인간을 사랑을 꿈꾸는 로봇의 모험

김서율
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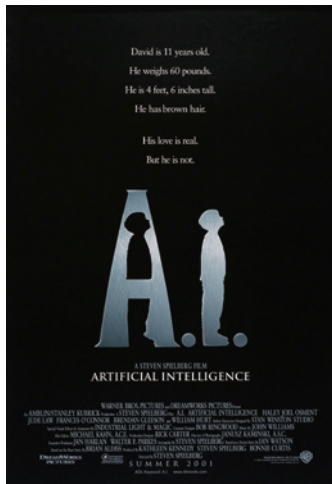


연재 영화 목록

1. <애프터 양>, 코고나다, 2022
2.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마이클 알메레이다, 2017
3. <에이아이>, 스티븐 스필버그, 2001
4. <환송대>, 크리스 마르케, 1962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SF 영화는 인간과 비인간을 둘러싼 윤리적, 존재론적 질문들을 무수히 잉태해 왔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묻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지식과 기술의 사용 등에서 현대 인류보다 더욱 확장된 능력을 갖춘 존재를 지칭하는 포스트휴먼에 관한 담론도 부상하고 있다.



<에이아이> 2001

감독 :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주드 로,
브렌던 글리스, 샘 로버츠,
프랜시스 오코너, 윌리엄 허트

<에이아이>(2001)는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들로 군림하던 스탠리 큐브릭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합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큐브릭이 원안을 쓰고 오랜 세월 동안 구상해온 프로젝트를 세상을 떠난 큐브릭 대신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으면서 완성한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비평적으로는 논란을 불러온 영화다. 차가운 이성으로 대변되는 큐브릭과 따뜻한 감성을 대표하는 스필버그의 만남이 시너지보다는 불협화음을 불러왔다는 식의 반응도 많았다. 그런데 대뇌피질과 변연계의 신경 회로에 관해 언급하는 뇌 과학 연구를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성과 감성이 그렇게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에이아이>는 얼핏 상반된 성향을 지닌 듯한 두 사람의 세계가 불화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존할 수 있음을 절묘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재편된 미래 세계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존재에 관한 가장 고전적일 물음들을 품는 영화다.

영화가 시작하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화면을 메우며 배경이 되는 미래에 관한 내레이션을 흐른다. 온실가스로 만년설이 전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암스테르담, 뉴욕, 베니스 등 전 세계 많은 주요 도시가 죄다 물에 잠긴 세계가 <에이아이>의 무대다. 빈국에 거주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굶주렸으나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임신 허가제를 도입하여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로봇은 배고픔을 모르고 한 번 공장에서 생산되고 나면 더는 자원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사회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사실상 효용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로봇 개발사인 사이버트로닉스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장 굶어 죽어 가는 인류의 빈부 문제는 화두가 아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인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성 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트로닉스사의 교수인 하비 박사(윌리엄 허트)는 고통을 느끼는 로봇을 시연한 뒤 한술 더 떠 감정을 가진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며 장내를 시큰둥하게 한다.

그렇게 하비 박사의 계획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 개발된 아이 로봇인 데이빗(헤일리 조엘 오스먼트)이 탄생한다. 통상의 시제품이 원만히 기능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빗은 사이버트로닉스 사내 직원인 헨리-모니카 스윈턴 부부의 집에 입양된다. 그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데이빗을 입양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부부의 친아들 마틴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니카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랑을 인식받은 데이빗은 모니카(프랜시스 오코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불현듯 깨어난 마틴이 데이빗을 몰아내기 위해 공작을 벌인다. 자사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데이빗을 데려왔음에도, 로봇공학자의 관점에서 데이빗을





고깝게 보면서 거리를 두던 헨리(샘 로버즈)와는 달리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 가던 모니카마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데이빗을 버리고 떠난다.

<에이아이>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상당히 다른 결을 취한다. 전반부는 인간과 로봇을 조물주와 피조물, 진짜와 가짜, 창조와 모방의 구도로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듯하다. 이에 대한 묘사는 집요하고 때론 강박적으로까지 다가온다. 이를테면 거울에 투사되는 데이빗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거나, 오프닝에서 고통을 느끼는 여성형 로봇이 립스틱을 바르는 대목과 바로 이어 데이빗을 입양한 엄마가 된 모니카가 차 안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등치시키는 장면 등이 그렇다. 전반부의 데이빗은 창조주인 인간 가족에 자리에 놓인 피조물 로봇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고안된 섹스 로봇인 지골로 조(주드 로)가 등장하면서 서부터 데이빗과 조,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주변화되는 로봇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모니카가 읽어준 피노키오 이야기에 감화되었던 데이빗은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줄 푸른 요정을 찾기 위해 모험을 나선다.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며 데이빗의 여정에 집중하는 영화는 인간과 비인간 로봇의 경계에 관해 탐색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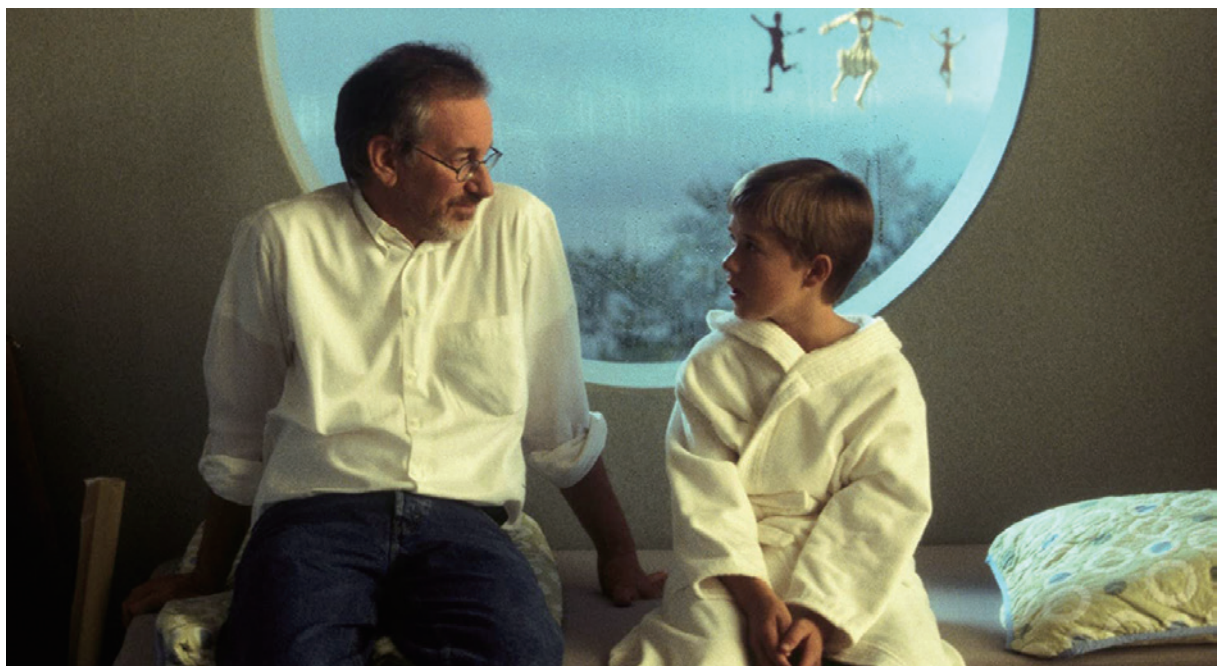
운실가스로 만년설이 전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암스테르담, 뉴욕, 베니스
등 전 세계 많은 주요 도시가
죄다 물에 잠긴 세계가
<에이아이>의 무대다.

플레시 페어라는 로봇 처형 축제에 데이빗이 이끌려가게 되는 대목은 경계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플레시 페어는 인간에게 간택 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한 채로 유기당한 로봇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도륙내는 축제다. 로봇들을 짓밟음으로써 인간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무대인 셈이다. 데이빗은 이곳에서 로봇 같지 않은 감정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주목받는다. 처형대에 올라선 데이빗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로봇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청중에게 로드 존슨(브렌던 글리슨)은 인간을 대체하려는 기계의 농간이라며 항변한다. 그런데 축제에 도취하였던 이들은 갑자기 야유를 퍼부으며 질타한다. 로봇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고유의 감정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로봇 따위와는 구별되는 고결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맹신하는 청중에게 데이빗이라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골격을 직접 스캔해 보지 않는 이상 기계로 보일 리 없을 것이다.

아수라장이 된 축제를 벗어난 데이빗과 조는 휘황찬란한 테마파크 같은 장소인 루즈 시티에 당도한다.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홀로그램형 사전 시스템인 다알아 박사를 만난 데이빗은 박사에게 파란 요정의 존

재를 묻는다. 그리고 그의 답변에 따라 하비 박사가 있는 사이버트로닉스사로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데이빗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대량으로 양산된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데이빗은 혼란에 빠진다. 일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로봇들을 데이빗이 마구잡이로 부수자 하비 박사가 등장한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데이빗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던 하비 박사의 계획이었다. 하비 박사는 데이빗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독립적인 의지로 이를 실천으로 옮긴 사실에 감탄하며 데이빗이 남긴 성과를 칭찬한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데이빗은 하비가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동료들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맨하탄의 바다로 몸을 내던진다. 그렇게 깊은 심해로 떨어진 데이빗 앞에는 푸른 요정 동상이 자리한다. 데이빗은 응답 없는 푸른 요정 앞에서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되 읊는다.

이제 <에이아이>에 대한 평가를 확연히 가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영화는 2000년의 세월을 갑작스레 건너뛴다. 언뜻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존재로 오해를 살만한 외계인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영화 팬들과 비평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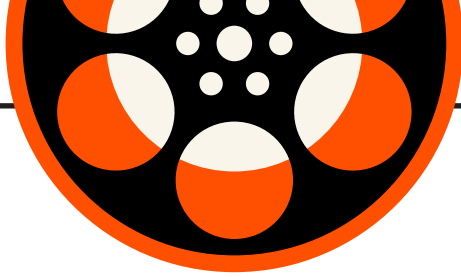
스필버그 특유의 감상주의가 영화를 망쳐놓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데이빗이 맨해튼의 바닷속에 갇힌 채로 푸른 요정을 마주한 장면에서 영화를 종결짓는 것이 어둡고 암울한 비극의 결말로서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잖은 이들이 큐브릭이라면 그러하지 않았을 거라 지레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영화의 종반부는 오히려 큐브릭의 구상과 가까웠다.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으며 오해를 산 탓인지 스피버그 본인 또한 인터뷰로 이에 관하여 해명한 적이 있다.¹⁾ 한편으로 큐브릭이라면 행했을 선택을 최상으로 가정하면서도 스피버그에게는 비판의 잣대를 편향되게 들이미는 이들이 상기할만한 다른 요소도 있다. 인간 아역 배우를 기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던 큐브릭과는 다르게 이 영화의 핵심과도 같은 존재인 할리 조엘 오스먼트라는 당대 최고의 아역 배우를 기용한 것은 스피버그의 선택이었다. 사랑이라

는 감정이 이식되기 전후의 로봇을 상이한 연기 방식으로 탁월하게 소화해낸 할리 조엘 오스먼트의 존재는 이 영화에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라도 전면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애초에 두 감독이 갖고 있던 방향이나 기조가 일치하는 것과 실제로 영화를 작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큐브릭이 연출했다면 영화의 정조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스피버그의 손끝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에이아이>의 종반부는 이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감동이라는 키워드로 흔히 요약된다. 엔딩을 비판하는 이들은 억지 감동을 위한 감상주의적 무리수로, 결말에 깊이 감명받은 이들은 슬프고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애상적 정서가 짙게 묻어나오는 영화의 에필로그



1. <Spielberg Explains Ending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youtu.be/rz7sPiOoU7A>



영화는 비로소 마침내 창조와

재창조, 재생과 소멸이라는

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여타 로봇들처럼 시제품의

일환이었던 데이빗은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라

여겨온 사랑의 감정을 고스란히

체화한 존재가 되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줬던 것처럼,

조건 없는 애정을 받는 존재로

거듭났다.

가 분명 진한 감정을 자아내는 건 맞다. 그러나 <에이아이>가 풍부한 물을 안은 작품으로 도약하는 것은 결말이 영화의 구조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영화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은 이러한 엔딩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종반부에 난데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외계인 같은 형상을 한 존재는 극적인 순간을 갑작스레 조성하기 위해 등장시킨 외계인이 아니라 실은 고도로 진화를 거듭해온 로봇이다. 결빙된 장소에 갇힌 유물들을 발굴하고 이전 세대의 인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비 박사가 만들어 낸 감정을 가진 로봇들은 선조 격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은 진화된 존재임에도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 인류의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데이빗은 슈퍼 메카의 도움으로 인류의 기억을 가진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깨어난다. 그리고 진화한 로봇은 데이빗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모니카와의 재회를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찰나의 시간이지만 실행해준다. 프롤로그와 대비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간 연구자들은 인류에게 효용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 로봇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사연이 있는 하비 박사가 감정을 가진 아이 로봇을 개발한 주된 목적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의 창조한 시제품인 데이빗의 행보에 흡족해하고 실험의 성공을 자축하면서 이를 양산해낼 공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고도로 진화한 로봇은 이전 세대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정신, 인간 문명의 기억을 복원하는 데 관심을 둔다. 각 시대의 개발자들에 해당함에도 이들은 매우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셈이다.

데이빗을 감정을 지닌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했던 모니카는 말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진화 로봇이 생성한 시공간 속에서 데이빗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소생한다. 이때 모니카는 과연 인간인가, 홀로그램인가. 감정을 갖지 못하는 로봇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속설과는 달리 모니카와의 재회로 감격의 눈물을 내비치는 데이빗은 사람인가, 기계인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가. <에이아이>는 말하자면 인간이 로봇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로봇이 인간을 재생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영화는 비로소 마침내 창조와 재창조, 재생과 소멸이라는 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여타 로봇들처럼 시제품의 일환이었던 데이빗은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라 여겨온 사랑의 감정을 고스란히 체화한 존재가 되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줬던 것처럼, 조건 없는 애정을 받는 존재로 거듭났다. 데이빗은 인간 그 자체를 꿈꾸지 않았다. 인간의 사랑을 동경했다. <에이아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영화의 핵심 소재로 삼아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인간의 탄생과 소멸의 순환 속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인류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 모른다. 